1~2차시	풍류의 멋과 흥	( )학년 ( )반 이름: ( )

학습주제

자연을 벗 삼은 선비의 시조

1. 시조 '두류산 양단수' **지은이: 남명 조 식**

초장: 두류산 양단수를 듯고 보니,
양단수를 예전에 듣고 이제 와 보니,

중장: 도화 뜬 맑은 물에 조ᄎᆞ 잠겻셰라.
복숭화 꽃이 뜬 맑은 냇물에 산 그림자마저 잠겨(비쳐) 있구나

종장: 무릉이 어듸오, 나ᄂᆞᆫ ᄒᆞ노라.
아이야, 무릉도원이 어디냐?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.

2. 작가 탐구: 남명 조 식 (1501~1572)

조식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누구보다 학문에 정진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, 남명은 책에서만 길을 찾은 선비가 아니었다. 그는 늘 몸에 과 을 지니고, 자신을 경계하고 반성하는 등 치열한 자기수양과 실천했다.

을 12번이나 올랐으며, 나이가 들어서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지냈다. 그의 사후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, 그의 50여명은 선비지만 으로 전장에서 나라를 구했다.

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하는 이를 라 한다.

3. 시조를 노래한 곡을 , 이를 노래한 전문음악인을 '가객'이라 한다.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
					林 仲		黃 黃	仲 仲			仲 黃	黃	林 仲		黃
					두류			사					아		
黃 倩	仲		林 黃		黃 倩		黃 倩	仲 黃	倩	黃	仲仲				
야			다		아			수			르				

LIVEWORKSHEETS